

계백[階伯:階伯]

백제와 마지막을 함께한 충신

미상 ~ 660년(보장왕 18)



계백 표준영정

/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1 개요

계백(階伯)은 백제의 장군이다. 660년 황산벌에서 신라·당 연합군의 백제 공격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나라를 지킨 충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2 660년 이전 백제 내부의 정세와 계백의 중용

계백은 660년의 전투 이전까지의 기록에서는 그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다. 계백에 관해서 『삼국사기(三國史記)』 「계백열전(階伯列傳)」에서는 벼슬하여 달솔(達率)이 되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 [관련사료](#) 그의 가문이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百濟本紀)」에서도 660년 신라와의 전투에서만 그 활동상이 드러날 뿐으로, 그 이전에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볼 만한 단서는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자왕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전투에 계백을 중용하였고, 계백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신라군을 막아내는 등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계백이라는 인물의 갑작스런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백제 내부의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자왕(義慈王)은 집권 초기에는 정력적으로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大耶城) 등을 빼앗아 영토를 확장하였고, 당(唐)에 조공을 바쳐 대외 관계 안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655년 (의자왕 15) 이후 의자왕은 실정(失政)을 하기 시작하였다. 과도하게 주색에 탐닉하고 이에 대해 직언한 성충(成忠)을 옥에 가두었으며, 자신의 서자(庶子) 41명을 백제의 최고위 관등인 좌평(佐平)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를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성충이 죽기 직전 앞으로 전란이 닥칠 것을 예측하고 그 경우 기벌포(伎伐浦)와 침현(沈峴)을 지켜 막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으나 의자왕은 이를 살피지 않았다. [관련사료](#) 그러나 결국 성충의 예측대로 당군과 신라군이 백제를 공격해 왔고, 의자왕은 조정 대신들과 함께 방어 전략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당군을 먼저 막아야 한다는 좌평 의직(義直)과 신라군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달솔(達率) 상영(常永)의 주장이 대립하였고, 귀양 가 있던 좌평 흥수(興首)는 성충과 같은 계책을 내놓았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관련사료](#) 그 사이 신라군이 탄현을 지나면서 백제는 지리적 이점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 셈이 되었다.

계백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더 이상 대응을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였다. 의자왕은 계백